

도서관 정보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짚 책이야!'

(트로트 들으며 읽어볼 만한 책들)

‘요새 노래가 노래냐!’라는 책에서 이영미 저자는 대중가요 발전의 주인공은 ‘세대 갈등’이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처럼 어느 시대든 세대에 따라 즐겨 듣는 음악이 달랐고, 서로의 음악 장르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비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최근 대중음악 분야만큼은 ‘세대통합’을 이루었으니 그것은 바로 트로트 덕분이다. 트로트, 많이 듣고 부르는 만큼 이제 한 번쯤은 ‘읽어’볼 때이다.

정리 도서발굴단 포스트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 **미스&미스터트롯: 히트송 모음집**

저 자 장소라
출 판 칸타밀레북스

전 세대로부터 큰 인기를 끈 TV 프로그램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에서 방영된 인기곡과 각각의 우승자 송가인, 임영웅의 최신곡을 담은 악보 모음집이다. 이 책에 담긴 주요 최신곡은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송가인의 ‘이별의 버스 정류장 With 유산슬’, ‘가인 이어라’, ‘엄마아리랑’ 등이 있다.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대중가요**

저 자 선성원
출 판 현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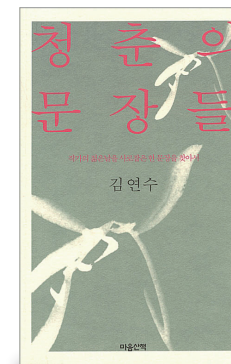
총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각 시대를 풍미한 가수와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한국 대중가요 120년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시대를 특정 짓는 119개의 이야기에 그 시절을 대표하는 노래를 한 곡씩 뽑아 관련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트로트의 원조에 대한 논란과 터무니없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 노래들, 올림픽과 월드컵 홍보곡 등 숨겨진 이야기도 읽어 볼 수 있다.



-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저 자 장유정, 서병기
출 판 성안당

1907년을 한국 대중음악의 태동기로 규정하고 있는 이 책에서 장유정, 서병기 두 저자는 1907년 이전과 이후의 대중음악사를 각각 집필했다. 한국 역사의 큰 흐름과 대중음악의 큰 조류를 시대순으로 서술했는데 여기에 세부 주제를 정해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 **청춘의 문장들**

저 자 김연수
출 판 마음산책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벌어지던 그 날, 나는 뜻한 바가 있어 무대에 올라갔다. ‘부르실 곡명은?’이라고 묻는 노래방 기계에다 대고 소리쳤다. ‘몰라서 묻냐?’ 그리고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

책은 작가가 기억하는 ‘청춘’의 모습과 키워온 것, 사라져간 것들을 추억한다.